

# 하나님! 저 꼭 단기선교 가야 하나요??

[[나미미]]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. 전 세계 2만여명의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. 마치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듯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자리에 많은 형제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선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고, 또한 구체적인 선교에 참여하겠다고 서언하였습니다.

저 역시 그 서언에 동참한 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.

[[나미미]]을 통해서 놀라운 것도 하나를 허락하였습니다. 하나님께서 저를 [[[에서 제가 속해 있는 지구 총무장]]의 자리를 허락하였습니다. 부족하고 한 때 하기 싫다고 때를 썼던 저였지만,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허락하시어, 섬김이 무어인지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.

어느 더 지구총무로 임명 받은 지 한참이 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루하루 삶에 쫓겨 바쁘게 다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. 사실 단기선교 계획은 지구적으로 계획하였으며, “다같이 가자!” 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. 그러나 바쁜 삶과 방학 동안에 수행해야 할 졸업작품으로 인해서 거의 가지 않는 것으로 제 스스로 확정된 상황이었지요.

하지만, 간사님께서 “영종장, 같이 가자” 라고 제안하셨을 때, 그 때서야 깨달게 되었습니다. 내가 비록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했는데 너무 제 생각이 앞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

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. “하나님 저 과연 단기선교 가야 하나요? 무엇 때문에 가야 하는 것입니까? 제가 총무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가야 하는 것입니까?” 제 마음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. 선교를 간다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 가는 것이지, 자신의 직분 때문에 가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제 생각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. 그리고 풀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책임을 무시해 버리는 저의 잘못이란 것을 알기에, 제 자신의 생각이 전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.

하지만,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미 저에게 주어져 있었더군요. 단기선교를 여부를 결정하기 하루 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지막 승부를 던지셨습니다. 교회 목사님의 “세상을 바꾼 영적 거인” 이란 주제로 사모엘상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에게 존중을 요구하셨으며, 마지막으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“우리가 하나님을 100%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100%만 주시며, 우리가 100%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100% 주신다”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.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저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셨으며, 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. “하나님! 제가 꼭 단기선교를 가야 하는 것입니까?”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. 하나님의 침묵은 이미 응답이었습니다.

전 더 이상 총무이기 때문에, 많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존중하고 충성되기 위해서, 그 말씀에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갑니다.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너무 감사합니다.



## PROFILE



성명	한글	윤영종	생년월일	1984. 6. 14. (♂)
영명	한자	尹永宗	주민등록번호	840614 - 1XXXXXX
주소	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78-23번지 (TEL. 010-6752-4620)			
학력	기간	학교명	전공분야	
	1991. 3 ~ 1997. 2	광주각화초등학교(졸업)		
	1997. 3 ~ 2000. 2	광주각화중학교(졸업)		
	2000. 3 ~ 2003. 2	광주동신고등학교(졸업)		
	2003. 2 ~	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(재학)	선사 및 통신 공학 전공	
병역	복무기간	군별	계급	병과
	2004. 8. 16 ~ 2006. 11. 24	공군	병장	통신
신장	체중	취미	그때 그때 다름 (유번, 드라마 등)	특기
175 cm	65 kg			파고드는 것, 종교, 기독교
인생좌우명	받을 것 다 받자. 드릴 것은 아주 확실하 드리자!!			

경력	기간	근무처	직위	업무내용
	~			
	~			
자격	취득년월일	자격·면허명	시행처	
면허				

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

2007년 12월 2일

성명 : 윤영종

## !!재정적 후원이 필요합니다!!

현재 110만원 중 10만원이 채워진 상황입니다.

하루 속히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세요!!

우체국 503698-02-123389 예금주: 윤영종

가지 않습니다. 내세울 말한 것도 없습니다. 내 자신을 나타낼 만한 것도 더덕 없습니다. 상도 없고, 그렇다고 드러낼 만한 자격도 있는 것도 아니고, 경력도 없습니다.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. 24년의 삶을 돌이켜 본다 해도, 빈곤이 너무나도 많은 인생이군요. 채워져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, 분명히 확실한 것이 있다면, 그것은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통해 내 삶의 더욱 더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물론 지금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이지만, 100% 드렸을 때 100% 채워지는 경험을 이 단기선교를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

## !!기도해 주세요!!

1. 캄보디아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눈으로 목격할 수 있길 원합니다.
2. 선교를 가는데 있어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올바르게 전하고 주님만을 알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.
3. 이 단기선교를 통해 디아스포라의 삶을 더욱 더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고, 평생 디아스포라의 삶을 헌신할 수 있길 원합니다.
4. 단기선교를 준비하는데 있어 방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인도하시고 단기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날 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.
5. 단기선교 이후, 삶에 있어 더욱 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, 이 경험을 통해 믿음의 장벽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뛰어 넘어 오히려 초월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길 원합니다.
6. 방학 동안에 졸업작품을 진행해 나갈 것인데 팀 가운데 온전한 화합과 하나님께서 우리 팀에 지식과 지혜를 더욱 허락하시어, 최고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길 원합니다.
7. 재정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.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가는데 있어 110만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. 이 재정이 하루 속히 채워지게 하시고, 더욱 더 채워져서 다른 형제들을 후원할 수 있길 원합니다.